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북한 '봉한학설'의 부침

김 근 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Between Science and Ideology: The Rise and Fall of *Bong Han* Theory in the 1960s North Korea

KIM Geun Ba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ideology through the case study of *Bong Han*(鳳漢) theory in North Korea. In the 1960s a medical doctor Bong Han Kim reported a theory demonstrating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Kyungrak*(經絡) system which had been known as the flowing route of *Ki*(氣) in oriental medicine. Some party technocrats picked up and highlighted the theory as a major scientific accomplishment embodying the independent political line which they began to pursue with a feverish enthusiasm. With support from the political regime, the theory became well-refined with elaborate and advanced experimental techniques in its methodology but at the same time it is increasingly stained with the political ideology in its content. As the *Bong Han* theory was hailed as "a communist science", it exerted a deep influence on North Korean society: for example, the *Bong Han* theory helped oriental medicine to be 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and also helped the independent political line to develop into *Juche*(主體) thought that had been diverging from the orthodox socialism. The *Bong Han* theory soon turned out to be unreasonable as a scientific theory, nevertheless, its ideological implications continued and spreaded powerfully with vitality.

Key Words: *Bong Han* Theory, Oriental Medicine, Technocrat, *Juche*(Self-Reliance) Thought, North Korea

1. 글을 시작하며

1960년대 북한은 자신이 거둔 최고의 과학 업적으로 동서양 의학의 연구를 통해 경락(經絡)의 실체를 밝혔다고 여긴 봉한학설을 내세웠다. 이 학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독창성과 탁월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연구성과의 명명에 해당 과학자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생물분류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마 남북한을 통틀어서도 유일하다시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에서 과학영웅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합성섬유 비날론의 발견자 리승기도 그 위세에 눌려 한동안 드러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봉한학설은 그 등장과 침몰이 이상하게도 갑작스럽게, 또한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상당히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과학계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권력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이 학설의 중요성을 앞다투어 내세우며 이끌었다. 마침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과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며 정치적 성장을 하던 기술관료들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학설의 경우는 대개의 과학이론이 획기적인 것일수록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그를 둘러싼 학술적 논의도 치밀하게 벌어지는 데 비해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봉한학설이 단순히 과학자사회의 학술연구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그보다 이 학설은 오히려 과학과 정치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부침을 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북한에서는 자립노선을 기조로 한 새로운 사회이념이 부상하며 이와 관련한 과학 외적인 요인이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다. 이 때문에 이 학설은 북한의 사회체제와 일체화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과학의 우수성이 곧 체제의 우월성으로, 그 역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인식되며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한의학¹⁾이 그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사회체제에서 어떻게 해서 중요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연구를 주도한 김봉한은 서양의학 연구자임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누구보다 한의학의 과학화에 앞장선 배경 및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되짚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이 봉한학설

1) 남한에서의 한의학(韓醫學)과는 달리 지금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으로 불린다. 그렇지만 그 명칭은 그동안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번에 걸쳐 바뀌었다. 처음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에서 초기에 사용되던 한의학(漢醫學), 더러는 동방의학으로 명명되다가 1960년대부터는 상당기간 중국과 대비되는 한반도(오래 전의 명칭인 東國, 海東) 고유의 의학이라는 의미에서 동의학으로 이름 붙여졌다. 중국에서는 중의학, 일본에서는 皇漢醫學, 和漢醫學으로 불리듯이 국가마다 명칭이 저마다 달라졌다.

이 갑자기 획기적인 과학적 성과로 인정을 받게 된 사회적 맥락, 이 학설이 거꾸로 그것을 정당화한 사회체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 예 등을 눈여겨 볼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 봉한학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으로서는 수명을 다하지만 그 이데올로기적 분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기능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고찰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같은 연구는 과학 내적으로보다는 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탐구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한의학의 부상

해방후 상당기간 북한에서는 한의학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이 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는 같은 기간 남한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남한에서는 의학계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 지니는 치료효과와 일반국민에의 기여 등을 인정해 한의과대학의 설립을 허가하고 한의사 면허를 제도화한 데²⁾ 반해 북한에서는 특기할 만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것을 중시하던 당시 북한에서 한의학은 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의학과과학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던 서양의학의 지식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모호하고’, ‘신비한’ 이론체계로 여겨졌다. 결국 ‘근대적’, ‘과학적’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전근대적’, ‘봉건적’인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한의학은 비록 치료효과는 높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닌 비과학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이미지에는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56년 4월 개최된 노동당 3차대회를 계기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에서 수상 김일성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습관화된 한의약을 깊이 연구 분석하며 그의 우수한 점을 섭취하여 대중 보건 사업에 도입[引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이어서 개진된 “과학 일꾼, 특히 사회 과학 부문 일꾼들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의 하나는 선진 과학의 연구 사업과 아울러 과거의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며 일체 과학 연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잘 뒷받침되었다.³⁾

2) 당시 남한에서의 한의학 정착과정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40년사」(1989)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3) 김일성,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근로자」(1956. 5), 52, 86쪽.

그 즉시 세부시행 조치로 “한의학을 발전시키며 한방 치료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라는 내각 명령 제37호가 취해졌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과학원 의학연구소에 동방의학연구실을 설치하여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 둘째로 중요 치료예방기관 내에 한방치료과를 광범히 개설하여 한의사들을 적극 참여시킨다. 셋째로 한의들을 가능한 조직화하여 한의종합진료소들을 널리 만든다. 넷째로 생약자원을 적극 탐사하여 그의 채취 수매사업을 확대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로 국영 건재약국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한약을 염가로 제공하고 각종 생약 수출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⁴⁾

따라서 이 때부터 한의학은 국가 보건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며 그 위치가 새롭게 높아지게 되었다.

... 동방 한의학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이다. 한의사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의료 일군이 부족한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적 의학 발전의 현실적 당면 과업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한의술의 전통적인 경험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우리 나라의 기후와 풍토, 인민들의 체질, 생활조건들을 고려하여 생약들을 백방으로 리용하는 고귀한 경험들이 있다. 때문에 오늘 보건 일군들 앞에 나선 당면 과업은 그들을 인민 보건 사업에 인입시키여 방조하며 오랜 선조들의 고귀한 경험의 소산으로 이룩한 의학 기술상 제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의학 유산의 우수한 전통들을 새로운 단계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⁵⁾

이렇듯 한의학의 급격한 위치 향상은 우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그 영향을 받게 되었던 점과의 관련을 지적할 수 있다. 마침 중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이래 북한에 앞서서 중의학(中醫學)을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국 중의연구원 창설, 서의(西醫)병원에 중의과·침구과의 설치, 중의연합의료기관의 개설, 서의 대상의 중의학 연구반 및 학습반 조직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었다.⁶⁾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중국의 중의학 및 그 정책을 배울 실습생, 나중에는 유학생들을 그곳으로 파견하였다. 중국의 선진 중의학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들을 빨리 배우고자 애썼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 인사가 북한으로 돌아와 주도적 위치에서 펼친 한의학 및 한의사에 관한 정책은 초기일수록 중국으로부터 본받은 것들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북한정권이 중소분쟁 및 반대정파 부상에 직면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4) 주홍재, “한의학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인민보건」 (1957. 7), 9쪽. 아직은 개인 개업한의가 부정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5) 리병남, “인민 보건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한 당면 과업”, 「인민」 (1956. 11), 67쪽.

6) 중국의 중의학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馬伯英 외(정우열 역), 「中外醫學文化交流史」(전파과학사, 1997), 654-662쪽,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효선, “중국에서의 중의(한의) 정책과 그의 성과”, 「인민보건」 (1957. 12), 14-18쪽: “한의학은 위대한 보물고이다”, 「인민보건」 (1960. 4), 42-45쪽 참조.

갖출 필요에서 제기한 자립 및 독자노선의 영향이다. 당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추종보다는 자기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현실 조건을 잘 고려해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적절히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조선의 역사에도 천문, 기상학, 인쇄술, 의학, 건축기술 등에서처럼 뛰어난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에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연구, 섭취하려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그 일환으로 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한의사가 당시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더는 데도 일정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무상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부터 의료 수요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실 그동안 의료인 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긴 했으나 사회의 인력수요 추세에 비하면 그 수급문제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유희 의료인력의 활용 방안이 여러모로 모색되었는데 한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주된 대상이었다.⁸⁾ 더구나 1958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한의약의 무상치료를 다음해부터는 전면적인 실시로 확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로써 이들 한의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농촌이나 산골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의학은 정권 담당자들의 혁명 전통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정당화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 때에 “빨찌산 전우들은 한의학을 가지고 빨찌산 전우들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인민들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켜”⁹⁾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의학은 김일성 무장투쟁세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작지만 그 일부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당국은 그동안 한의학을 비하하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 때부터 한의학을 멸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민족의 고귀한 창조적 경험과 성과를 보려 하지 않는 ‘부르조아사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한의학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잔재가 일부의 사람들 속에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현대 의학 과학이 앞선 선조들의 이어져 내려온 경험의 축적을 토대로 발전하고 그 노력이 없었다면 현

7) 하양천, “과학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근로자」 (1956. 7), 23-33쪽.

8) 평양시만 해도 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한의사가 1백명에 이르고 있었다. 리병남, 앞의 글, 66쪽.

9) 김효선, “해방후 15년간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거둔 성과”, 「조선의학」 (1960. 10),

11쪽. 이같은 사실 이외에 홍순원, 「조선보건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를 비롯 나중에 출간된 북한측 자료에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참고로 그는 1910년대 중반 잠시 세브란스연합의학고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에 이에 관한 증언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재의 결과는 나타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유물론의 입장’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앞으로는 한의학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자체의 가치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

그래서 한의학은 민족문화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의학과학으로서의 가치 또한 뚜렷이 지닌 것으로 재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의학은 “인민성과 그것이 이루어 놓은 역사적 공헌”을 크게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들 속에서 나와 인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며 인민들 속에서 충실히 복무하여 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인민의] 의학”이라고 본다. 둘째로 한의학의 이론은 “소박하나마 유물 변증법적 관점”에 서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 대립물의 모순 속에서 존재함은 물론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통일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로 한의학은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대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학에 비과학적이고 신비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의학이, 비록 현대의 과학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험의학이기는 하나, 치료성과에서 우수한 실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적지 않은 부문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북한이 이렇게 한의학을 옹호하고 나서게 된 것은 과학에 대한 그간의 판단 및 태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과학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겨지던 보편성(세계적인 것)·이론성(논리적인 것)의 절대성이 무너지며 인민성(국지적인 것)·실천성(경험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인민의 과학’, ‘경험적 과학’이라는 말도 과학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이는 어찌 보면 북한이 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사회주의노선을 수립해 가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3. 한의와 서의의 갈등

기대와는 달리, 한의학은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통치권력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계로부터 반발이 거세게 나타났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학분야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우려하며 급격한 변동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의측에서 뿐만 아니라 한의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었다.

북한에서 한의학의 제도화¹²⁾는 한의의 존재와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지만

10) 김효선, “한의학에 대한 서의가 본 관점”, 「인민보건」(1957. 2), 25-26쪽.

11) 같은 글, 23-25쪽.

12) 북한 한의학의 제도화와 관련한 주요 사실들은 「동의학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의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사상이념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한의사들이 사적인 이익을 멀리한 채 인민 건강의 증진에 헌신해야 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집단화·협동화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상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사회주의 의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소유의 협동조직인 한의종합진료소가 대대적으로 설치되어 나갔다. 이 한의종합진료소는 1957년 103개에서 1960년 6월 182개로 확장되며 주도적인 사회주의적 한의의료기관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¹³⁾ 드디어 한의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부문과 발맞추어 한의학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의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60-70대의 연로한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당의 정책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극 나서서 배우려 하거나 따라주려 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개업의로 활동해 오며 자신의 비방(秘方)을 비밀로 삼고 다분히 개인적 이익을 쫓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내에는 많은 유파가 형성되어 있어 서로간에 쌓인 불신·분파로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었다. 더러는 황당한 치료방법이나 미신행위를 동원하여 환자들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것이다.¹⁴⁾ 이런 이유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한의학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마련이었다.

초기의 한의학 정책은 서의들이 주도하였다. 당시 중국으로 파견된 실습생 및 유학생들은 대개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⁵⁾ 아무래도 한의들은 학교교육 제대로 받지 못해 한의학을 새로운 사회체제에 맞게 이념화·제도화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경험적 임상치료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그 이론체제를 세우고 설명하는 면에서도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 결과 한의학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도 서의 출신인 김효선¹⁶⁾이 임명되게 되었다.

그런데 한의와 서의들 간에는 한의학의 발전 전망을 둘러싸고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명칭에서 보듯 한의들은 자신의 의학을 '서(양)의학'에 대응한 '동방의학', 후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실은 申載鏞 편저, 「북한 한의학」(同和文化社, 1992), 58-69쪽에 잘 나타나 있다.

13) 주홍재, 앞의 글, 9-10쪽; 김효선, "해방후 15년간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거둔 성과", 앞의 잡지, 12쪽. 치료예방기관에 동의과는 1956년 10개에서 1960년에는 332개로 모든 시·군의 인민병원으로 확장되었다.

14) 김효선, "한의학 발전에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인민보건」(1959. 4), 19-20쪽.

15) 실습생으로 중국에 파견된 인물들 중 이력이 알려진 사람은 물론 이후에 유학생으로 보내진 사람들도 대개가 서의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건 소식", 「인민보건」(1960. 12), 48쪽.

16) 그는 서양의학 전공자로서 중국에 실습생으로 다녀온 후 보건성 의무국 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중의학’에 대비해서 ‘동의학’으로 부르며 그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냈다.¹⁷⁾ 이와는 달리 서의들은 중국에서 사용되던 ‘신의학’과 ‘한의학’을 다르게 이해해서 그들을 대비되는 용어로 받아들였다. 즉 한의들이 한의학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그 독자적인 체계를 주장했던 데 반해 서의들은 한의학을 서양의학의 하위범주에 위치시키며 그들 간에 위계구조를 두려고 했던 것이다. 서의들이 보기에 한의학은 아직 과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선진 현대의학으로 이해·설명되어야 할 일종의 낙후된 분야였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에 대한 서의들의 멸시나 차별은 여전히 강하게 존속되고 있었다.

사실, 북한이 눈여겨본 당시 중국에서는 한의학이 깊은 관심 속에 급속하게 성장하며 독자적인 이론 및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들로 중의약학을 연구하는 중국 중의연구원이나 한약연구소가 독립되어 있고 중의 의료기관의 기본 형태는 중의병원과 종합진료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의 담당 의료인력 역시 독립된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서의들이 즐겨 사용한 신의학이라는 말도 원래 중국에서는 서양의학이 아닌 중의학과 서의학이 결합한 통일된 새로운 의학체계를 지칭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서양의학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신의학과 구의학이라는 용어가 서양의학, 중의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혹 사용되기도 했으나 그 뜻은 ‘새로 유입된 의학’과 ‘오랜 전통을 가진 의학’을 의미하고 있었다.¹⁹⁾ 이는 북한에서 신의학과 한의학이 다분히 ‘새로운(앞선) 의학’과 ‘오래된(낡은) 의학’으로 이해된 것과는 크게 달랐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형태의 차이로 인식했던 데 반해 북한은 우열을 지닌 수준의 차이로 보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초기 북한의 한의학 정책은 중국의 것을 서의의 입장에서 변형시켜 시행하려 한 것이었다.

17) 당시 한의학계의 대표적 인물인 조현영은 한의학을 서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학문분야로 내세우고 있었음은 조현영, “동방 의학의 중요성과 그 발전 전망에 대하여”, 「조선 과학원 통보」 3(1957), 21-25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1900년 경북 영양 태생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나온 민족의식을 지닌 인텔리였다.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에 참여하여 총무간사를 역임하였고 그 해체 후에는 「통속한의학원론」을 집필하며 1930년대 한의학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그는 시인 조지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李鍾馨, “韓國東醫學史”,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현대민족문화사대계」 (1977), 312쪽.

18) 류기춘, “중화인민공화국의 보건”, 「인민보건」 (1957, 8), 62쪽; 김효선, “중국에서의 중의(한의) 정책과 그의 성과”, 앞의 잡지, 16쪽; 리덕전, “새 중국 보건 위생 사업의 10년”, 「인민보건」 (1959, 10), 7쪽.

19) 馬伯英 외(정우열 역), 앞의 책, 654-662쪽.

한의학은 현대 의학으로서 아직 과학적으로 개척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오늘 현대 의학에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점령 못하고 있는 한의학의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반드시 신의사들이 나서야 하며 한의사들은 그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중략)

... 우리 나라 의학은 어디까지나 신의학이 기본이며 신의학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하며 그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의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한의학의 《특수성》만을 들고 한의학이 신의학에 접근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의학 발전에 저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한의학 발전 그 자체에도 결정적인 저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²⁰⁾

즉 그 내용은 한의학을 서의학에 흡수하여 주로 서의들에 의해 그것을 서의학의 이론과 방법 등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에 관한 주요 정책적 조치를 보면, 의학연구소에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한의학 연구실을 설치하고 한의종합진료소 못지 않게 주요 병원 안에 한방과와 침구과를 개설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몇 년간은 새로운 한의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기존 한의들을 재교육시키고 보다 중점적으로는 서의들에게 한의학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958년부터 예비 서의를 위해 대학에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기존 서의에 대해서는 한의학 학습반의 결성이 권장되었던 것이다.²¹⁾ 물론 중국에서도 서의들이 중의학을 열성적으로 배우게 되지만 그것은 해체 모니 장악을 위한 일환이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경우 서의들 사이에는 한의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한의학은 현대 과학의 분석이나 실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결국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유였다. 그것이 일부 임상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동안 쌓인 경험의 축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지도적 서의들조차 “한의학이야 다만 예로부터 《한약》이 좋기 때문이고 한의학 그 자체는 경험 의학이니, 형이상학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²²⁾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일제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이래 의학을 비롯한 과학 전공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한의학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갈등의 여지만 더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한의학의 제도적 정착은 양쪽의 갈등과 불화를 때마침 불어닥친 사상투쟁을 통해 잠

20) 김효선, “한의학 발전에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앞의 잡지, 22쪽.

21) 김효선, “해방후 15년간 한의학의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거둔 성과”, 앞의 잡지, 12-13쪽.

22) “학계 소식”, 「조선 의학」 7(4)(1960), 52쪽: [(리진홍)], “평양시 한의종합의원 원장 리진홍 동무의 토론(요지)”, 「인민보건」(1959. 5), 36쪽: 홍학근, “의학 과학 일·군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조선 의학」 6(5)(1959), 12-13쪽.

재우고 당사자들의 적극성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게 되었다. 기존 한의들의 행동은 분파주의, 소부르쥔아적 성향으로 질책됨과 동시에 서의들의 태도 역시 일제 잔재로서 부르쥔아사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의 하나인 한의학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나 “남의 것만을 좋다고 하는 교조주의적 태도”, 그리고 “일제가 남긴 의학에서의 악독한 사상 잔재”는 마땅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³⁾ 개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신에 새로운 통합적 질서를 의학계에도 세우려고 하였다.

이 때부터 한의학과 서의학의 관계는 양쪽의 독립성이 다소 인정되는 가운데 통합이 모색되는 말 그대로 변증법이 발휘되어 갔다. 1959년 들어서면서는 활동않는 한의사들의 재등록과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가 이루어져 한의사층이 보다 확대되었다.²⁴⁾ 다음 해에는 평양의학대학에 입학정원 120명의 한의학과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한의학계의 오랜 소망대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새로운 한의사들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²⁵⁾ 서의들이 술선수범하여 한의학을 학습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한의들의 경우는 자신의 분야의 재교육은 물론 서양의학도 부분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는 한의와 서의 연구자들이 단일한 연구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 사업도 추진되어 나갔다. 이로써 북한은 향후 의학 발전의 방향으로서 서의학과 한의학의 “유기적 통일·합작”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들어서는 주체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의학이 보다 장려되는 계기를 맞았다. 일례로 한의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고취하는 행사들이 처음으로 잇달아 열렸다. 1960년에는 <제1차 전국 한의학 경험 교환회>가 각지에서 3백여명의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²⁶⁾ 같은 해 말에는 <허준의 「동의보감」 저작 350주년 기념 보고회>가 의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속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바 있었다.²⁷⁾ 1961년에는 「동의보감」 1-5를 비롯 여러 편의 한의학 서적들이 번역 혹은 저술되어 본격적인 출간을 보게 되었다.²⁸⁾ 또한 <리제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 저작 60주년 기념회>도 새로운 조명을 받으며 개최되었다.

23) “학계 소식”, 「조선 의학」 7(4)(1960), 52쪽.

24) “한의 기술 일·군들의 재등록 및 자격 심사 요강”, 「인민보건」 (1959. 7), 66쪽.

25) 개성의학전문학교에도 1959년 한의학과가 설치되어 매년 160명의 중하급 한의사들이 양성되게 되었다.

26) “학계 소식”, 「조선 의학」 7(4)(1960), 51-52쪽.

27) “학계 소식”, 「조선 의학」 3(1)(1961), 46-47쪽.

28) 당시 출간된 한의학 서적으로는 「한의학개론」, 「한약학개론」, 「침구학」, 「기공료법」, 「실용생약」, 「12지장충증에 대한 한의 예방 치료법」, 「동의보감」 1-5,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한의산부인과학」, 「한의소아과학」, 「한의내과학」, 「한의진단학」, 「은병학」, 「조선명의전」 등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의학과 서의학의 단순한 통일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인민들의 감정과 체질에 맞고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할 새로운 형태의 의학을 앞세우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와 인민에 맞는 그리고 독창적인, 한편으로는 한의학과 서의학의 장점을 보다 포괄한 의학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참다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준의 한의학 체계와 처방은 물론 이제마의 사상의학도 분과주의의 한 단면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이제 한국인에 의해 제창된 뛰어난 의학이론의 모범 및 전형으로 부각되었다.²⁹⁾ 아울러 의학계에서는 한의학과 서의학의 통합 노력이 과학과 사상 모든 면에서 선진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양 진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도 더욱 활발히 추진되게 되었다.

4. 봉한학설의 제창

김봉한(金鳳漢)³⁰⁾이 한의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이 무렵에 들어서였다. 1957년 그가 발표한 논문만 보더라도 그의 연구주제는 전형적인 서양의학의 생리학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³¹⁾ 당시 그는 북한 최고의 의학연구원 창립 시에 발기인의 한 명으로서, 동시에 평양의학대학의 생리학 강좌장으로서 서의학에 관한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고 보면 한의학 연구에 그가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한약 약종상의 집안에서 성장했으므로 일찍이 한의학에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은 다른 의학자들에 앞서 그가 한의학 연구에 적극 뛰어들게 된 하나의 주된 배경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아울러 그가 이후 진행한 경락의 연구에 적용한 실험적 방법은 이미 이전부터 생리학에서 널리 쓰이던 것들이어서 몸에 익숙해 있었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경락과 같은 한

29) “우리 나라의 탁월한 의학자 리제마 선생의 생애와 그의 활동”, 「조선 의학」 8(5)(1961), 13-16쪽.

30) 김봉한은 1916년 서울의 한 약종상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성고보를 거쳐 1940년 경성제국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 생리학 담당 조교로 있다가 해방을 맞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러던 중 전쟁 때에 월북하여 평양의학대학 교수, 경락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1960년대에 북한에서 발표한 “경락체계”와 “산알학설”은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오고 급기야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였다. 현재까지 그의 이력은 中央日報社 附設 東西問題研究所, 「北韓人名辭典」(중앙일보사, 1983), 64쪽: 공동철, 「김봉한」(학민사, 1992): 「소설 김봉한」(한솔미디어, 1997)에 간략히, 때로는 부정확하게 소개되어 있다.

31) 1957년 과학원 의약학연구소의 과학연구 발표회에서 김봉한이 보고한 논문은 “일시적 가온이 골격근의 흥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 분석”이었다. “1956년도 의약학 연구소 과학 연구 발표회”, 「조선과학원 통보」 1(1957), 55-56쪽.

의학의 주제를 서양의학의 방법 및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한의학 연구에 적극 나서게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요인을 알아내는 간단치 않다. 다만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 있기는 하다. 먼저, 한의학의 과학화사업이 김봉한이 속해 있던 북한 최고의 의대인 평양의학대학³²⁾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이였다. 기초의학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그로서는 지위 때문이라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사업에 연루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는 마침 북한 전역에 사상검열이 불어닥치고 있던 때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상 및 전력문제로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상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로서는 다른 월북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전기를 스스로도 찾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알리는 일인 데 당시 북한당국이 장려하고 있던 한의학, 그 중에서도 핵심과제라 할 경락(經絡)체계의 과학화는 가장 적합한 연구주제의 하나였다.

그는 전쟁시기에 월북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인사들처럼 사상전력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다를 바없이 그도 사회주의 사상이나 경력을 내세울 만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과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물론 철학에 다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유심론적 사조에 관한 것들이었다.³³⁾ 아울러 그가 미리 앞장서서가 아니라 뒤늦게 마지막 월북대열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를 항상 뒤따라다니게 될 원죄와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그는 남한에 있을 때 여느 과학자들과는 또다르게 우익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창당 및 운영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관계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러한 점들은 그를 남들보다도 사회적, 정치적 의의가 한층 뚜렷한 연구과제에 보다 힘쓰도

32) 다른 의대에 비해 이 평양의학대학은 학술적인 측면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그 명칭도 다른 곳은 '의과대학'이었지만 이 대학은 유일하게 '의학대학'으로 불렸다.

33) 그의 동창생인 한겨부는 그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 공산주의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공동철, 앞의 책(「김봉한」), 49쪽 참조. 월북 과학기술자들의 전반적인 특성과 성향은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홍남공업대학의 설립", 「亞細亞研究」 40(2)(1997), 117-130쪽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34) 공동철, 앞의 책(「소설 김봉한」), 74-76쪽에는 그가 한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가 한민당의 창당 및 운영과 어떤 식의 관련을 맺었을,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명단에 올랐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해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주임교수인 이갑수가 후생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그 위원으로 다수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그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조현영이 지방부장, 나중에는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朱槿源, 「舍春苑의 回想」(曉文社, 1983), 58쪽; 국사편찬위원회, 「資料 大韓民國史 I」(탐구당, 1970), 62-63쪽; 宋南憲, 「解放3年史 II: 1945-1948」(까치, 1985), 439-441쪽 등 참조.

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과학계는 새로운 기술관료들이 부상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던 때였다. 변모하는 국내외 환경에 발맞추어 독자노선에 부합하는, 보다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고 북한의 문화 전통에 어울리며 북한사회에 기여할 과학기술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1961년 리승기에 의한 초유의 비날론 공업화 성공은 독자노선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진작에 일대 불을 붙여 일으켰다.³⁵⁾ 이를 계기로 과학에서의 주체성있는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창되게 되었다. 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의 부흥, 아울러 그것과 양의학의 통합적 연구가 보다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이 때에 과학연구를 이끈 사람들은 한결같이 월북 과학자들이었다. 리승기를 비롯한 려경구, 계용상, 한홍식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1950년대 후반 사상검열 과정에서 사실상 실권을 잃고 과학행정가에서 과학연구자의 처지로 되돌아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오히려 과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연구경험과 경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월북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과학에의 꿈'은 이들이 남들보다 과학연구에 훨씬 매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월북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과학 연구 외에 달리 없었던 것이다.

김봉한은 1961년 8월 첫 논문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³⁶⁾ 당시는 북한 내에서 한의학 연구가 주체성을 지닌 분야로 장려되고 있을 뿐아니라 이미 중국, 일본, 소련 등지에서도 동양의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을 때였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의 연구는 동의학의 핵심내용이라 할 경락학설을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혈 부위의 저항, 전위, 전기도 등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경락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연구추세에 발맞추어 김봉한도 경락의 실체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연구과제로 삼았다. 그도 먼저 외국의 연구에서 하던 대로 전기 생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혈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기반하여 경락의 실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³⁷⁾ 이 때에 그가 사용한 실험방법은 외국 연구자들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다양한 부위의 실험을 통해 보다 많은 실험데이터를 얻었다는 점이 달랐다. 이는 한의학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집체적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였다. 이 연구집단에는 그가 속해 있던 평양의학대학 생리학 강

35) 김근배, "'리승기의 과학'과 북한사회", 「한국과학사학회지」 20(1)(1998. 6), 11-17쪽.

36) 이 논문과 함께 후에 발표된 일련의 그의 논문들은 藤原知 외(생활의학연구회 편역), 「경락의 대 발견」(일월서각, 1993), 61-174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7) 김봉한,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 의학」 9(1)(1962), 5-13쪽.

좌와 대학부설 의학연구소 경락연구실의 서의와 한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고 함께 월북한 후배, 제자들도 가세되어 있었던 것이다.³⁸⁾ 이에 힘입어 그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성과라 할 생물체에 경혈 부위가 있고 그것은 내장의 활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든가 입장에서 더 나아가게 되었다. 바로 경락이 다른 체계와는 별도로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표 1). 당시 외국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경락을 특정한 신경조직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상태였다.

그의 혁신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여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경락을 발견했는가?”라고 묻곤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확고한 신념” 덕분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그는 경락계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수백, 수천 번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켜 끝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⁹⁾ 이렇게 그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이 실재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고자 말겠다는 연구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갔다. 이는 아마도 한의학 고전이론에 대한 철저한 믿음, 기능과 형태의 통일적·변증법적 파악 자세(기능이 있는 곳에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에 기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연구에서 성공에 필요한 “대담한 과학적 구상과 정확한 연구 방법, 난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비상한 전개력이 높이 발양”⁴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인체에는 경혈과 같은 전기적 특성을 가진 점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어떤 특정부위에 자극을 주었을 경우 그 영향은 선을 따라서 다른 부위로 계속해서 전달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 전달 속도는 신경보다 아주 느리며 전달경로 역시 신경 또는 혈관계통과는 다른, 고전에서 제시하는 경맥의 주행과 같다고 한다. 나아가 경혈과 경맥의 구체적인 형태까지도 부분적으로 제시하며 경맥을 절단할 경우 그 기능이 상실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는 논문에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해부 조직학적 계통”을 이루는 경락의 실체를 마침내 밝혀냈다고 쓰고 있다. 물론 아직은 경락이 자극의 전달경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을 뿐 그 본체가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채택한 논문 양식을 차근히 살펴보면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단지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심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이념적 요

38) 그와 함께 월북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었던 김세욱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연구논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기도 하였다.

39) 김봉한, “《귀중한 것은 신념이다》”, 『대중과학』 1(1966), 5-6쪽.

40) 최창석,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근로자』 (1963. 12하), 10쪽.

구를 잘 간파하고 이에 적극 부응하려 했던 태도의 한 단면을 드러내 준다. 왜냐하면 그의 논문 서론은 실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귀한 유산인 동의학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본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시작된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나중에 추가된 듯한데, “우리의 성과는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여 현대의학과 동의학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정당성의 또 하나의 실증으로 된다”는 자평까지 하고 있다.⁴¹⁾ 그가 남달리 시대 상황의 변화나 추세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 양식은 1970년대 주체과학이 본격화되면서 새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 논문은 그 효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한동안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심지어 학술잡지에도 실리지 않았다. 그 내용이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그것의 진위를 따져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중에 가서 학술지에 실리게 될 때까지도 그에 대한 의학계의 학술적인 논평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 중에는 그 내용을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⁴²⁾ 그 이유는 그의 첫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사실은 크게 미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주된 내용을 밝히는 데 이용한 실험방법을 “우리가 창안한 방법”으로만 적고 있고 근거로 제시하는 데이터도 부실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 때문에 초기에 발표된 이 논문 자체만을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물론 과학성에 대한 신뢰조차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빼어난 인물에 한해 드물게 주는 박사학위와 교수자격⁴³⁾을 그가 획득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 있어서도 다소 이상한 점이 엿보인다. 당시에 상정된 학위 예정자들은 이미 1962년 1월 23일에 국가학위학직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그 가부가 결정되었는데 이 때에 김봉한은 빠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며칠 지나지 않은 1월 29일에 상무위원회가 다시 열려 그에게 최고의 학위와 학직 수여가 추가로 추인되었다.⁴⁴⁾ 수여자가 그뿐이었던

41) 결론에서의 언급은 다소 늦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통보(이하 과학원 통보로 약칭)」(1962. 3-4)에 실린 그의 논문에 나타나 있다.

42) 최창석,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앞의 잡지, 10쪽.

43) 당시까지 의학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장기려(48년, 월남), 최명학(48년), 주성순(49년), 리호림(49년), 최응석(49년), 홍학근(49년), 주민순(61년) 정도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 중앙 년간」(1949), 132쪽; 「조선 중앙 년간」(1956), 448쪽 등을 참조.

44) “국가 학위 학직 수여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비준된 학위 논문들(1962년도)”, 「과학원 통보」(1962. 5-6), 57-60쪽; “金鳳漢博士의「經絡の實態に關する研究」”, 「月刊朝鮮資料」(1962. 2), 48쪽.

것으로 보아 이 때에 상무위원회는 그의 학위논문을 비준하기 위해 특별히 열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연구성과는 갑작스런 결정, 그 속에는 아마도 적지 않은 내부의 진통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그의 연구는 논문이 발표된 다음해에 들어서야 비로소 부각되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논문개요가 학술잡지에 실리고 그것의 의의를 밝힌 권두언이 그에 앞서 덧붙여졌다. 그의 연구는 “... 현대 생물학 및 의학의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위대한 발견이다. 이것은 인류 과학의 보물고에 대한 고귀한 기여로 되며 우리 나라 의학 과학의 빛나는 성과로 된다”는 것이다.⁴⁵⁾ 느닷없이 그 연구의 의의가 사상 유래없는 것으로 역설되기에 이르렀다.

당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기술관료의 주도로 ‘주체’ 이데올로기가 과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였다. 제4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독자노선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던 김창만이 부수상으로 등극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원의 책임자들이 내각의 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각 부문에서 주체의 확립과 그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이는 과학계에서 기존의 해외파 세력과 신흥 국내파 세력간의 권력 다툼 양상으로 번지며 결국은 현장출신의 국내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이런 가운데 김봉한의 경락 연구는 새로이 든든한 지원 세력의 도움을 얻으며 의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아주 대표적인 주체성 있는 한 모범으로 간주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김봉한의 연구성과가 급부상한 데에는 과학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고려가 우선한 듯하다. 당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개가 당관료와 정치성 짙은 학자들이었다.⁴⁷⁾ 그 이유는 앞의 권두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연구성과가 “...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견지하며 현대 의학과 동의학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과학정책의 정당성의 또 하나의 실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수상 김일성이 친히 나서서 김봉한과 경락연구집단에게 “우리 나라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의학 이론에 확고한 과학적 및 물질적 근거를 부여하였으며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대한 탁월한 기여”를 했다는 축하문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의 연구에 더욱 권위가 실리게 되

45) “세계 과학의 보물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우리 나라 의학 과학의 빛나는 성과”, 「조선 의학」 9(1)(1962. 1), 3-4쪽.

46) 김근배, 앞의 논문(“리승기의 과학”), 18-24쪽.

47) 이들은 당이나 보건성 등에서 과학 및 보건 관련 업무를 책임맡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일례로 리종률, “우리 당 보건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근로자」(1962. 3), 33쪽; 최창석, “우리 당 보건 정책의 위대한 승리”, 「근로자」(1962. 10 하), 7-8쪽 등을 참조.

었다.⁴⁸⁾

이 무렵부터 동의학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됨은 물론 점차 한의학이라는 말을 대체하며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1962년을 전후로 해서 아주 뚜렷하게 대비된다. 김봉한의 경락 연구를 계기로 한의학의 탐구에 상당한 자신감이 생겼고 그 나아갈 길도 보다 주체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동의학이라는 말이 쓰였으나 그 의미는 서양의학에 대응한 동방의학을 줄여 지칭한 것이지 중의학에 맞서 그 독자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업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학 명칭의 사용은 북한이 독자적인 학문의 추구를 대내외에 밝히는 함축된 표현이었다.

김봉한은 이어 1963년 11월에 그의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 때에는 곧바로 학술지에 실렸다. 그것도 북한 최고의 과학잡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통보」를 비롯 「조선의학과학원 학보」, 「조선 의학」 등에 비중있게 게재되었고 아주 질 좋은 종지와 컬러 사진이 사용되었다. 논문제목은 “경락 계통에 관하여”로 토론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일로, 주요 명칭에 발견자의 이름을 붙일 것이 제의되어⁴⁹⁾ 이 때부터 일명 ‘봉한학설’로 불리게 되었다. 물론 논문의 연구자는 사회주의적인 집체적 연구방식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 인지 김봉한이 아닌 평양의학대학 경락연구소로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방대한 분량을 갖추고 있었다. 실험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때에 이용된 고가의 현미경, 방사선추적장치, 정성분석기, 각종 시약 등은 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특별히 도입된 것들이었다. 그 결과 이 논문에는 새로운 연구결과와 주장들이 많이 담기게 되었다(표 1).

몇 가지를 보면, 먼저 봉한소체(경혈의 실체)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심층부에도 분포하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봉한관(경맥의 실체)은 표층, 심층은 물론 혈관, 임파선 등과 같은 여러 맥관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봉한소체는 다른 부위와는 다른, 일명 $\gamma \cdot \text{Le} \cdot \text{D}$ 파라는 특유한 전기적 활성을 보인다고 한다. 보다 획기적인 내용으로는 봉한관 속에는 봉한액(경맥의 실체)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조직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다량의 핵산, 특히 DNA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또한 이 봉한액은 일정한 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락계통의 활동이 세포핵과 관계없이 특이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봉한액

48) 강영창, “우리 당 과학 정책 관철에서의 성과와 그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과학원 통보」(1962. 3-4), 6쪽.

49) “김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의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 보고회 진행”, 「조선 의학」(1963. 12), 25쪽.

<표 1> 봉한학설의 시기별 변천과 그 주요 내용

시 기 내 용	1차 (1961. 8)	2차 (1963. 11)	3차 (1965. 4)
거명된 연구자	김봉한	김봉한, 김세욱, 박정식, (권정도)	김봉한
연구방법	전기적, 생리적 방법	전기화학적, 생리적 방법, 생체염색법, 방사능측정법, 형광/위상차현미경 관찰, 정량분석화학법	생화학적, 조직생리학적 방법, 정량분석화학법, 해부조직학적 방법, 입체/전자현미경 관찰
실험재료	주로 토끼	주로 토끼	토끼, 인체
주요명칭	경혈, 경맥	봉한소체, 봉한관, 봉한액	봉한소체, 봉한관, 봉한액, 봉한산알 등 세분화
존재위치	표층, 피하	표층, 심층, 피하, 맥관 내외, 장기 주변	표층, 심층, 피하, 맥관 내외, 장기 주변 등 세분화
내용물질	경액: 무색투명	봉한액: 다량의 DNA, RNA 일부	봉한액: 산알 (다량의 DNA 함유)
핵심기능	경락-장기 연계 반응	핵산과의 관련 추정	봉한산알-세포 순환
연구경향	외국 성과의 모방 및 의존	자체의 독창성 추구	세계적 우월성 과시 (노벨과학상 기대)
자체평가	경락실체 규명	경락체계(경락구조와 기능) 입증	경락체계와 생명현상의 관계 해명(산알학설)

자료: 김봉한,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 의학」 9(1)(1962), 5-13쪽; 경락연구소, “경락 계통에 관하여”, 「과학원 통보」 (1963. 11-12), 6-35쪽; 경락연구원, “경락체계”, “산알학설”, 「과학원 학보」 (1965. 5), 1-62쪽.

내의 핵산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⁵⁰⁾

따라서 이 연구는 경락계통을 고전이론의 기(氣) 대신에 봉한액의 순환로라는 현대과학으로 재파악하고, 그 실제 내용물이 바로 다량의 핵산이라 밝힘으로써 핵산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방의 국가들에서는 세포 속의 DNA를 궁극적인 유전물질로 보며 그것에 의해 생물체의 유전현상을 설명하려 했는데 봉한학설에 따르면 이 물질은 독립된 경락계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그는, 첫논문에서의 연구태도와 비슷하게, 봉한관 속에 있는 봉한액이 생명현상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핵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⁵¹⁾

이 논문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학술보고회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이 때는 특히 생물학 및 의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그만큼 이 논문은 겉보기에 내용의 획기성은 물론 정식 논문으로서의 체계와 짜임새를 갖추고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 논문은 선진적인 실험방법의 도입, 연구결과의 체계적인 구성,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등으로 과학 외부는 물론 내부의 인사들에게도 그 과학성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연구를 실로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의 “새로운 탁월한 기여”, “완전히 새로운 발견”으로 평가하였다. 물론 이 때에도 이들이 그에 대해 체계적인 학술 평가를 한 경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당시 북한에는 이 논문을 엄밀하게 평가, 토론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5. 후속연구의 파장

두 번째 논문이 가져온 파급력은 첫 번째보다도 훨씬 컸다. 그에 대한 당시의 공식화된 평가를 보면,

김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은 실로 과학 연구 사업에서 거듭되는 실패와 애로에 부닥쳐도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맑스-레닌주의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렇듯 짧은 기간에 세계적 대 발견을 한 공산주의적 과학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중략) 오늘 뿐만 아니라 먼 세기의 미래에도 세계는 웅당히 로동당 시대의 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⁵²⁾

50) 경락연구소, “경락 계통에 관하여”, 「과학원 통보」 (1963. 11-12), 6-35쪽.

51) 김봉한, “《귀중한 것은 신념이다》”, 앞의 잡지.

52) “인류 과학사 상에 길이 빛날 위대한 공적”, 「조선 의학」 (1963. 12), 1쪽.

경락계통에 관한 연구성과는 경락계통의 엄연한 객관적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생체의 조절기능을 포함한 생명현상의 근본문제를 일면적으로 설명하여 온 기존 학설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위대한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현대 의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혁명적 사변이며 세계 과학사에 금자탑을 이루어 놓았다.⁵³⁾

라는 것이다. 사실 그의 연구성과는 과학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룬 다윈의 진화론, 사회주의 권에서 특히 그 권위를 인정받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업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에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현대 생물학과 의학을 론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북한]을 말하지 않고는 론할 수 없게 된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어찌 흥분하고 감격하지 않겠는가!”⁵⁴⁾라는 언급은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 학설은 이제 학문 내적으로는 동의학 이론에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생물학 및 의학의 이론과 견해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락계통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는 유전학이나 단백질 대사, 생체활동을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임상치료 면에서도 이는 인간의 건강, 장수, 피로문제 등의 개선이나 수의 축산을 비롯한 산업경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⁵⁵⁾ 다시 말해 이 연구성과가 사회에 미칠 여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었다.

동의학이 제도적 정착을 본격적으로 이루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전문잡지인 「동의학」이 발간되기 시작하고 동의학연구실이 확대되어 동의학연구소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의종합진료소가 대폭 확장되고 서의 치료예방기관에 동의과가 널리 설치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같이 동의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위치를 보다 확실히 굳히고 그 사회적 적용을 한층 넓혀갔던 것이다. 그에 비례해서 서의학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전체 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과적으로 낮아졌다. 일례로 의과대학은 네 번째로 1959년에 해주의과대학이 세워진 후에는 1968년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⁶⁾ 사회적으로 의학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었음에도 서의학의 성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동의학이 새롭게 제도화된 가운데 급속히 확장되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1964년 2월에는 경락계통의 연구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53) 「조선 중앙 년감」(1964), 206쪽.

54) 같은 글.

55) 림영주, “위대한 공적”, 「대중과학」(1965, 6), 59-61쪽; 최창석,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앞의 잡지, 4-8쪽.

56) 박윤재·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醫史學」7(1)(1998), 68쪽.

내각결정 제10호를 채택하고 평양의학대학 경락연구소를 개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락연구원>을 조직하였다. 이는 당시의 의학과학원과 규모가 맞먹는 40여개의 연구실을 구비한 엄청난 규모를 갖춘 기관으로, 그 최고 책임자는 경락연구를 주도해온 김봉한이 맡았다.⁵⁷⁾ 또한 4월에는 독립적인 <조선경락학회>가 역시 김봉한을 회장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는 개인적으로도 경락연구에 대한 공훈을 인정받아 북한 최고의 학자에게 수여되는 인민상계관인으로 선정되었고⁵⁸⁾ 그와 함께 경락연구를 이끈 김세욱, 권정도 등은 박사학위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성과는 과학영화 「경락의 세계」로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소개되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곧바로 김봉한의 연구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여러 나라에 널리 배포하였다. 영어와 노어는 물론 중국어, 일어, 불어 등으로도 출간한 것으로 보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영어를 비롯한 서방의 언어로 북한의 과학논문이 출간된 것은 그의 논문이 처음이었다.⁵⁹⁾ 물론 이후로도 그같은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영어논문은 얼마나 많이 배포되었는지 지금도 미국의 주요 도서관에 널리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의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알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심 이를 통해 노벨과학상 수상을 노렸던 것으로도 이해된다. 당연히 북한당국에서는 김봉한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그럭저럭도 남을 업적으로 여겼음은 물론이다. 그래서인지 영어논문은 한글논문과 달리 경락연구소가 아닌 김봉한 개인에 의해 썬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기초학문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지 그는 의학박사가 아닌 생물학 전공의 이학박사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드물게 주요 명칭에 일일이 연구자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도 그의 위상을 한껏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은 자명하다. 그만큼 그의 연구는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북한이 자랑할 만한 아주 빼어난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뒤이어 김봉한과 경락연구집단은 경락계통에 대한 연구를 보다 세부화,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훨씬 새로운 학설을 과감히 펴나갔다. 1965년 4월에 개최된 <경락학회 제1차 학술보고회>는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토해낼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표 1). 먼저, 세 번째 논문인 “경락체계”에는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발표되었는데 몇몇 중요한 것들의 하나로 경락계통은 혈관 및 임파관 내의 내봉한관체계를 비롯 외봉한관체계, 내외봉한관체계, 신경봉한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룬다고 한다. 여러 체계의

57) 「조선 중앙 년감」(1965), 170쪽.

58) 제1회 인민상 과학부문 수상은 비날론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1959년 리승기가 받았다.

59) 영어로는 Kim, Bong Han, "On the Kyungrak System"(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4)이 발간되었다.

봉한관은 장기 내의 봉한소체 및 말단봉한소체들과 각각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단봉한소관을 통해 각 조직세포의 핵들과도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한액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표충봉한소체—심충봉한소체—장기내봉한소체—말단봉한소체를 거쳐 조직세포로 되돌아오는 식의 순환을 한다고 한다. 아울러 경락체계는 생물체의 분화 발생 시에 가장 먼저 나타나며 동물은 물론 식물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⁶⁰⁾

이보다 훨씬 획기적이었던 것은 경락체통의 주된 기능이 생명활동의 발현에 있다고 본, 앞서와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그의 네 번째 논문 “산알학설”이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봉한관을 따라 온 몸을 순환하는 봉한액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명 산알⁶¹⁾로 불리는 이 입자는 다량의 DNA를 함유하며 고유한 운동력을 가진 가운데 특정한 물질대사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즉 봉한관을 순환하는 이 산알은 자라서 세포로 되고 이는 다시 산알로 변하는 ‘봉한산알—세포환(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세포분열도 사실은 이 산알—세포—산알 운동과정에 놓여있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표충봉한소체에서 산알을 얻어 인공적으로 배양하면 각기 다른 종류의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명의 원천은 봉한관 속에서 경락체통의 흐름을 따라 순환하는 DNA를 다량 함유한 산알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생명의 기본단위는 세포가 아닌 산알로서 그 과정은 결국 경락체통에 의해 지배 관장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⁶²⁾

일부에서는 이들의 연구성과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유발하고 새로운 사회체제의 도래를 앞당기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⁶³⁾ 다윈의 진화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경락이론도 단순히 생물학과 의학의 혁신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혁명적 전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상응하는 “공산주의적 의학”, 즉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 할 수명 및 난치병 등을 해결하는 일도 이 학설에 의해 전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다. 왜냐하면 노쇠와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포의 생성, 성장, 사멸 기작을 알게 되었으니 장수 증진과 예방 치료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김봉한과 연구집단은 다음해부터는 인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에서 무병장수”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하였다.⁶⁴⁾

60) 경락연구원, “경락 체계”, 「과학원 학보」(1965. 5), 1-38쪽.

61) 이 입자는 살아 움직이고 마치 알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62) 경락연구원, “산알학설”, 「과학원 학보」(1965. 5), 39-62쪽.

63) 한세현, “생명 현상의 본질 해명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 「근로자」(1965. 5하), 6-13쪽; 권정도 외, “좌담회: 우리 시대의 탁월한 과학적 업적”, 「조국」2(7)(1965), 112-114쪽.

64) 김봉한, “《귀중한 것은 신념이다》”, 앞의 잡지, 5쪽.

이 무렵 직후인 1965년 중반부터는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일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자주성],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창조성]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자력갱생]”(65)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주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리승기의 비날론 대공업화가 성공한 1961년부터이나 그것이 사상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은 이 때에 들어서였다. 아직은 주체사상의 핵심이라 할 인간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인간 중심의 철학(66)은 그다지 보이지 않지만 그 초기의 모습을 지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당시 북한의 처지로서 맑스-레닌주의 혹은 마오주의 이외에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독자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곧바로 이같은 시도가 국내외로부터 수정주의적 편향이라는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 저항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주체사상을 옹호할 자신감이 그 내부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리승기의 비날론 대공업화 이후 과학계에서 추구한 새로운 과학, 특히 그 대표적 성과로서 세계적 업적으로 간주된 봉한학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주체사상이 제기된 시점이 봉한학설이 가장 정점에 도달해 있어 영향력이 막대했을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주체사상의 초기 형태가 가장 먼저 표출된 시점은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방문시에 행한 1965년 4월 14일의 연설이었고(67) 김봉한과 경락연구집단은 그 이전에 이미 “경락체계”, “산알학설”을 체계화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어 들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주체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과학은 서로간에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음은 물론 주체의 내용 자체가 봉한학설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이 지닌 특성을 그대로 닮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서의 혁명과 건설을 과학과 기술로 대체하면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할 정도로 서로간에는 강한 유비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봉한학설의 성공은 다른 국가에서와는 크게 다르게 새로운 학문분야를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그 후원에 열의를 기울인 점에 기인하기에 그것은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데 아주 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과학에서의 주체성있는 연구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거꾸로 주체의 과학성을 입증한 것으로도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65) 주체사상의 이 초기 형태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방문시에 행한 연설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표출되었고 “주체사상”이라는 용어하에 그 내용을 정리한 글로는 신진균,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1965. 10), 7-21쪽 등이 있다.

66) 황장엽은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 160-171쪽에서 완성된 형태의 주체사상이 1972년 9월에 처음 제시되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67) 이 때의 연설 내용은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로 즉시 출간되었다.

것은 보다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⁶⁸⁾

그런데 경락이론은 깊이있게 연구되고 짜임새를 더해가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갈수록 한편으로는 기존의 생물학 이론과의 대결을 보다 촉발하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이론 안에서도 여러 모순을 낳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경 및 혈관계체와는 다른 경락계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려 함은 물론 그것이 생명현상을 근본적으로 관장하는 기능까지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산알학설은 그 두드러진 일탈의 일례로서 기존의 세포설, 생리학, 유전학, 발생이론 등과 심한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락이론은 세밀화 과정을 거치면서 예외적이고 일치되지 않는 사례들을 여럿 노출시키게 되었다. 봉한관이 독립된 다순환 체계로 되어있다는지, 봉한액은 혈류와 반대 방향으로도 흐른다는지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물학계를 지배해 오던 소련의 리센코(Lysenko)주의가 후원 권력자 후르시초프의 사망과 서방에서의 유전학 발달로 1965년부터 파탄을 맞게 되었다. 이는 환경요인의 절대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 생물학' 대신에 유전자 DNA의 역할을 중시하는 서방의 유전학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뒤이어서는 서방의 유전학과 적지 않은 불일치를 보이고 있던 봉한학설도 그 파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소련에서의 리센코주의 몰락이 서방의 유전학을 활성화시키며 그 여파를 사회주의권의 변방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었다. 그만큼 봉한학설은 DNA와 관련해서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방의 유전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분명, 봉한학설은 1965년 후반부터는 일대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10월에 다섯 번째 논문 "혈구의 《봉한산알—세포환》"이 발표되지만⁶⁹⁾ 이에 대한 소개는 전무했을 정도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 내용이 너무 보잘 것 없거나 어떤 문제가 곧바로 지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조선 의학」에 일부 지면을 할애받아 적은 분량으로 눈에 두드러지지 않게 게재되었을 뿐이다. 이전의 열광적인 지지 및 선전에 비하면 갑자기 대단한 후퇴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1966년부터는 김봉한과 그의 연구에 대한 언급 자체가 공식적인 글에서 사라졌다. 급기야는 경락연구원과 경락학회가 폐지되고 보건정책과 연구를 책임지는 보건상과 의학연구원장이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다.⁷⁰⁾ 1967년 소련 의학계에서 경락에 대한 실체 발견을 과학적으로 인정

68) 보다 상세한 언급은 김근배, 앞의 논문("리승기의 과학"), 17-24쪽을 참조할 것.

69) 경락연구원, "혈구의 《봉한산알—세포환》", 「조선 의학」 12(1965), 1-6쪽.

70) 그동안 관계와 학계에서 봉한학설의 지지를 주도하던 최창석 보건상과 홍학근 의학연구원장이 전면 교체되었다.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봉한학설의 폐기를 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었다.⁷¹⁾ 이에 앞서 북한에서는 1966년 말에 리센코주의를 백지화하고 생물학을 유전학이론에 근거하여 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하였다.⁷²⁾ 그후 김봉한과 경락연구집단이 과학계에서 사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한동안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폐쇄화, 은둔화의 길을 걸었다.⁷³⁾ 이것 또한 봉한학설 파탄의 후유증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연구자는 봉한학설의 몰락을 때마침 불어닥친 권력다툼에 휘말려 빚어지게 된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기도 한다. 즉 1950년대 중반에 권력층의 일원으로 급부상한 박금철이 그의 딸을 김봉한의 연구에 참여시킨 것이 인연이 되어 이 연구는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다가 1967년 그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됨에 따라 이 학설도 갑작스럽게 같은 운명을 맞았다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봉한학설의 등장과 파탄은 권력자 박금철의 부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학설이 인정받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그보다 뒤늦게 훨씬 복잡한 과정, 다시 말해 북한체제의 변모 과정과 맞물리며 이루어졌고, 파탄을 맞게 된 것도 그의 실각에 앞서 이미 그 정후가 드러나고 있었다.

흔히 북한에서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공개화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은밀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봉한학설의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게 되었는지, 최종적인 판단과 처리는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주도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일반인들에게는 베일에 싸인 채 흐르는 시간 속에 파묻혀 서서히 잊혀지는 식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6. 결론적 고찰

봉한학설은 과학 내적인 요인보다는 다분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등장 및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는 리승기의 비날론 대공업화에 힘입어 북한의 실정에 요구되고 자체

7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 1022쪽. 월남한 의사인 김만철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 이외에 동독의 학자들도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서 봉한학설을 조사했다고 한다.

72)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 편1)」(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40쪽.

73) 그 하나의 예로 당시 여러 국가들로 배포되던 북한의 수많은 과학잡지들 중 1968-70년 중반 동안에 발간된 것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서방국가들에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74) 이는 공동철, 앞의 책(「김봉한」), 50-51쪽에서 저자가 김만철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지가 않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그가 봉한학설의 전말을 잘 알고 있을 사회적 지위나 지리적 위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자원이거나 설비, 인력을 활용할 ‘새로운 과학’의 추구가 주창되고 이를 정치사상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할 것이 역설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한의학의 경락에 관한 탐구는 의학 분야에서 일종의 주체성있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김봉한의 연구는 기존의 생물학적, 의학적 성과를 여러 면에서 뛰어넘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세계 최고의 노벨과학상을 능히 타고도 남을 업적이라고 여겼기에 그를 위한 노력을 열성적으로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이 학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과학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로 강조한 다윈의 진화론마저도 뛰어넘을 공적으로까지 간주되었다. 이러한 과학 발견이 과학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렇지만 과학을 대단히 중시했던 북한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몰고 온 충격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1965년 후반에 나타난 초기 주체사상의 공식적인 제기는 이 봉한학설의 등장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수정주의적 편향이라는 국내외의 비난에 대해 북한정권은 봉한학설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에서 추출한 메시지에 적잖게 힘입으며 맞설 수 있었을 터이다. 나아가 주체사상을 자신의 이념적 기반으로 삼으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던 현장 출신의 과학기술자들은 기술관료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며 집권세력의 새로운 파트너로까지 부상을 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주체사상은 새롭게 등장한 위대한 과학을 통해 입증된 의심할 바 없이 과학적인, 그러기에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사실 북한에서 이 새로운 과학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적 결과를 얻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공여부는 새롭게 바뀌어 가는 북한체제의 성패를 앞서서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과학은 단순히 제한된 전문영역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과의 통합적 관련성, 즉 일체화된 모습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과학은 그 위상이 높아지면 질수록 체제의 우월성을 보다 잘 드러내 주는 아주 좋은 표본 및 무기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과학연구의 경우 그 성취를 위한 노력은 과학자 한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전체가 총동원 체제로 관여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기에 봉한학설의 침몰은 북한사회를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한의학은 물론 과학계가 대폭 축소되었고 그 주도세력이 교체되었으며 외국과의 학술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사회체제가 한층 움츠러들며 활력을 잃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흐르기까지 하였다. 이들 모두가 봉한학설과 얼마나 깊이 관련을 가지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 학설의 파탄 이후에 그로부터의 충격도 적지 않게 받으며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보인다.

몇 년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주체과학’이 체계를 갖추며 본격화 되는 양상을 띠었다. 비록 봉한학설은 과학으로서의 존재 요건과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된, 그 중에는 정치사상 부문도 포함해서 이루어진 주체 확립, 주체 사상화는 나름의 관성과 생명력을 지니며 존속되어 나가게 되었다. 특히 사회가 다시금 예전의 안정을 되찾자 이 이데올로기는 새로이 위력을 발휘하며 이제 거꾸로, 한동안 주춤했던 과학계로 되돌아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동의학이 다시 재기의 힘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고 그 모습은 이전보다 자체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